

한국 수출의류제품의 주요 수출시장별 특성

지혜경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강사

Characteristics of Korean Export Clothing Articles to Each Important Market

Hye-Kyung Ji

Instruct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5. 10. 17. 접수; 11. 1.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export clothing articles in Korea. For the purpose, the proportion and unit price of each export clothing articles were analyzed to each important market.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

First, on the proportional aspect, to all world market, SITC 845(Articles of apparel, of textile fabrics, n.e.s.), 842(Women's clothing, of textile knit fabrics), and 841(Men's clothing of textile fabrics, not knitted), 844(Women's clothing, of textile, knitted or crocheted) and 846(Clothing accessories, of textile fabrics), 848(Articles of apparel, clothing access., excluding textile), 843(Men's or boy's clothing, of textile, knitted, crocheted.) in order were in large exported, after the mid-1990's. To each important market, the proportion of export clothing articles was varied.

Second, on the unit price aspect, to all world market, the unit price of export clothing articles went down slightly. For each item, 844(Women's clothing, of textile, knitted or crocheted) went up a little, 843(Men's or boy's clothing, of textile, knitted, crocheted.) and 845(Articles of apparel, of textile fabrics, n.e.s.) went down a little, 841(Men's clothing of textile fabrics, not knitted), 842(Women's clothing, of textile fabrics), 846(Clothing accessories, of textile fabrics) and 848(Articles of apparel, clothing access., excluding textile) went down greatly.

The unit price to industrialized countries,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in order was high, reflecting the developing stage of each nation's .

Key Words: proportion of export clothing article(수출 의류품목의 비중),
unit price of export clothing article(수출 의류품목의 단가)

I. 서론

중국의 세계 의류시장점유율이 2001년에 14.4%, 2002년에 16.0%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¹⁾. 중국은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과 선진국의

경기부진에 따른 저가품 선호를 최대도로 활용하며 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서 섬유산업 분야에서 급속히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은 원자재의 1/3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가공한 후 완제품을 만들어 그 완제품의 2/3을 해외로 수출하는 해외 의존형,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수출 방식도 주로 주문자상표 부착(OEM) 방식에 의한 소품종

대량생산 및 범용품 물량 위주여서 대외여건 변화에 신속적 대응이 어렵고 생산품목도 전문화, 특화되지 못하여 범용품의 과당 경쟁요소를 갖고 있다²⁾.

이와 함께 최근의 섬유·의류수출은 선진국의 경기 침체 지속으로 인한 수요 감소, 중국 등 후발국과의 경쟁 심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1999년 \$174억, 2001년 \$161억, 2003년 \$153억의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섬유수출 중에서도 특히 의류를 포함한 제품류 수출은 2003년도에 6.3%, 2004년도에 5.6% 감소하여 총 섬유수출 감소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수출단가도 2000년 5.23 \$/kg에서 2001년 4.84 \$/kg, 2003년에는 4.56 \$/kg, 2004년 4.76 \$/kg으로 하락하고 있어 업계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³⁾.

본 연구는 2005년 쿼터 폐지 이후 점점 더 격심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의류수출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1990~2000년 동안의 주요 의류수출시장에 대한 수출품목의 비중 및 단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의류수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의류수출 구조를 밝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수출시장별 제품전략을 수립하고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I. 이론적 배경

1. 한국 의류수출의 변화 및 요인

한국의 의류수출은 1962년 110만 달러가 처음 수출된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1989년에는 최고 92억4천3백만 달러로 홍콩, 이태리에 이어 세계 제3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는 계속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1960년대의 의류수출 증가에 대하여 박남규⁴⁾와 박진수⁵⁾는 이 시기를 경쟁력 형성기로 보고 이 기간의 의류수출 증가는 양질·저임의 노동력이 노동집약적 산업에 투입된 점, 산업에 대한 상대적 지식이 축적된 점, 정부의 전후 복구외지 및 차관을 통한 업계 지원, 기업가의 부에 대한 의지, 경

제 원조, 국내 수요의 상존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최대현⁶⁾도 이 시기의 의류수출 신장은 당시 한국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으로 쉽게 활용될 수 있는 산업 영역이었던 데다가 정부가 신발·가발·합판 등 다른 경공업 제품과 함께 의류 제품을 주요 수출 상품으로 지정하여 각종 금융·세제·행정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970년대 의류수출의 지속적 증가에 대하여 박남규⁷⁾는 이 시기를 경쟁력 성장기로 보고, 당시 근로자의 높은 교육수준과 빠른 기술 습득, 정부의 본격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 섬유산업 특별법을 바탕으로 한 세계·금융·수출절차 간편화, 기업가의 경쟁적 생산설비 확대, OEM을 통한 수출 증대, 종합상사의 발달, 석유화학산업의 발달 등과 같은 경쟁력 강화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박진수⁸⁾도 이 시기의 의류수출 증가는 정부의 수출 지원책 및 로컬 L/C제도를 통한 기업 지원, 업체들의 저가 제품 위주의 OEM방식 수출 및 화섬산업의 발달을 활용한 화섬소재의 대량 의류수출, 해외 시장의 수요 증가, 선진국 의류 제품의 경쟁력 하락에 따른 상대적 이점,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하에서도 최혜국 대우를 받았던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980년대에는 의류수출 규모가 세계 제3위에 이를 정도로 가장 컸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계속 하락하는 변화를 보였다. 박진수⁹⁾는 이 시기를 경쟁력 조정기로 보고 이 시기의 높은 임금 인상, 낮은 노동생산성, 높은 인력이동 등이 요소창출 메카니즘으로 진전되지 않아 차별화 전략이 추진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은주, 권경란¹⁰⁾도 이 시기는 급격한 임금 인상으로 지금까지 세계 의류시장에서 가졌던 저가 경쟁우위가 침식당하였으며 UN의 원화결상 요구에 따라 1985~1989년에 원화가 절상되어 수출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하였다. 1990년대의 의류수출 감소에 대해서도 성주영¹¹⁾, 이은향¹²⁾, 오윤경¹³⁾은 이 시기의 인건비 등 제 생산 원가의 급격한 상승, 기능 인력 및 기술 인력의 부족, 물류비용 증가,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해외생산 의존도의 심화, OEM 생

산에 의한 자체적인 제품개발가능 취약 등 국내적 요인과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EU의 경기침체, 중국·동남아 등 후발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에 따른 가격경쟁력 열세, NAFTA 발표 이후 한국의 의류 제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의 수입선 전환 등 대외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 한국의 의류수출시장

한국의 의류수출 40여년 동안 주요 의류수출 시장은 미국과 일본이 50.5~76.0%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미국은 1980년의 최저 35.5%에서 1962년의 최고 약 9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비중에 대하여, 산업연구원¹⁴⁾은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의류수입 시장으로서 성장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으로서 주목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미국 다음으로는 일본이 1965년 최저 약 5.8%에서 1995년 최고 37.1%까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유럽은 1960~1980년대에 한국 의류수출의 약 1/3정도를 차지하는 큰 시장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로는 서서히 감소하여 1990년대 후반에는 약 14.1~15.6%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장으로 아시아 및 러시아 지역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의 의류수출 시장이 과도하게 미국, 일본에 편중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많은 연구에서는 이러한 편중성이 향후 의류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강현수¹⁵⁾, 오윤경¹⁶⁾은 의류수출 지역의 과도한 편중은 한국의 의류 수출 대부분이 외국 바이어들의 주문에 의한 OEM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수요 변화나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수입규제도 쉽게 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은향¹⁷⁾도 이러한 편중성은 국내 수출 업체들간의 과당 경쟁을 유발하여 수출 단가를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극심한 재고를 가져와 채산성 악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하였다.

임재홍¹⁸⁾, 김영남¹⁹⁾, 박상현²⁰⁾은 선진국 시장에

대한 편중성 및 OEM 방식의 수출구조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향후 동일한 기술수준으로 생산되는 제품(또는 완제품)을 서로 수출입하는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최근의 경제 불려화 추세와 관련하여서도 한국과 소득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은 태평양 지역 내의 개발도상국들 및 지리적으로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과 산업내무역을 진전시킴으로써 대외적으로 무역 마찰이 없는 수출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출 증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기간

우리나라의 주요 시장별 의류수출 특성을 밝히기 위한 분석 자료로, 다음 두 기관에서 발행하는 의류수출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UN (United Nations)에서 발행하는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²¹⁾과 "Commodity Trade Statistics"²²⁾의 통계자료와 무역통계 데이터 추출서비스(Commodity Trade Statistics Data Extract Service)²³⁾를 이용하였다. 또한 OECD 발행의 "Foreign Trade by Commodities"²⁴⁾의 통계 자료 및 CD-ROM에 수록된 "International Trade by Commodities Statistics"²⁵⁾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대상 기간은 1990~2000년으로 하였다.

2. 수출의류품목 범주

본 연구에서는 수출의류제품을 SITC 84(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 Articles of apparel & clothing accessories)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하였으며 분석은 <표1>과 같이 3자리 수준의 의류품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고찰

1. 한국의 주요 의류수출시장

〈표1〉 수출의류제품의 품목분류

품목 분류	품목 내용	품목 분류	품목 내용
84	의류 및 의류액세서리 (Articles of apparel & clothing accessories)		
841	직물제 남성복 (Men's clothing of textile fabrics, not knitted)	842	직물제 여성복 (Women's clothing, of textile fabrics, not knitted)
8411	코트, 케이프, 윈드자켓 및 유사제품	8421	코트, 케이프, 윈드자켓 및 유사제품
8412	수트, 앙상블	8422	수트, 앙상블
8413	자켓, 블레이저	8423	자켓
8414	바지류	8424	드레스
8415	셔츠류	8425	스커트
8416	조끼, 속옷, 잠옷류	8426	바지류
		8427	블라우스, 셔츠류
		8428	속옷, 잠옷류
843	편직제 남성복 (Men's or boy's clothing, of textile, knitted, crocheted)	844	편직제 여성복 (Women's clothing, of textile, knitted or crocheted)
8431	코트, 케이프, 윈드자켓 및 유사제품	8441	코트, 케이프, 윈드자켓 및 유사제품
8432	수트, 앙상블, 자켓, 바지류	8442	수트, 앙상블, 드레스, 스커트, 바지
8437	셔츠류	8447	블라우스, 셔츠류
8438	속옷, 잠옷류	8448	속옷, 잠옷류
845	기타 의류 (Articles of apparel, of textile fabrics, n.e.s.)	846	섬유소재 잡화류 (Clothing accessories, of textile fabrics)
8451	유아복	8461	의류 액세서리(유아용 제외) (손수건, 숄, 넥타이, 장갑 등)
8452	SITC6571-2, 65732-4소재의 woven 의류	8462	스타킹, 양말류
8453	저지셔츠, 폴오버 및 유사제품	8469	기타 재료로 만든 의류 액세서리 (고무, 플라스틱, 니트로 만든 장갑, 숄, 넥타이 등)
8454	티셔츠, 조끼류		
8455	브레이지어, 콜셋, 가터류		
8456	수영복		
8458	기타 woven 의류(운동복 등)		
8459	기타 knit 의류(운동복 등)		
848	비섬유소재 의류 및 잡화류 (Articles of apparel, clothing access., excluding textile)		
8481	가죽으로 만든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8482	플라스틱 또는 고무로 만든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8483	fur로 만든 의류 및 의류 액세서리		
8484	각종 모자류		

본 연구에서 한국의 주요 의류수출 지역은 〈표 2〉와 같이 우리나라 총 의류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일본, 유럽(독일과 영국)과 최근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으로 한정하였다. 〈표2〉와 같이 우리나라 의류수출은 총

의류수출의 78.9~90.5%가 미국, 일본, 유럽 지역의 주요 선진국 시장에 편중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분석기간 동안 01.~3.3%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아시아 시장에서는 가장 큰 비

〈표2〉 한국의 주요 의류수출시장의 수출비중 변화 : 1990~2000

(단위 : \$백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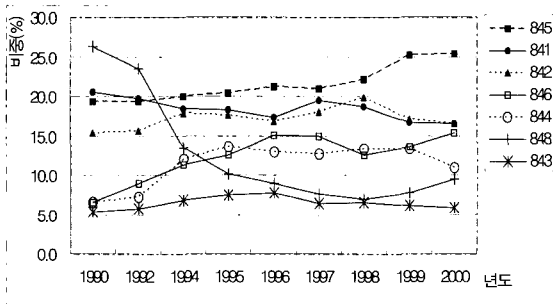
년도	총수출액	미국	일본	유럽	독일	영국	아시아	중국	비중합A	비중합B
1990	8,020	42.0	30.4	18.1	7.2	2.8	0.8	0.2	90.5	91.3
1992	6,868	40.7	31.2	18.3	6.9	2.8	1.3	0.2	90.2	91.5
1994	5,653	40.2	35.8	13.1	5.4	1.6	3.0	0.9	89.1	92.1
1996	4,237	36.2	33.1	14.1	5.4	2.0	6.2	1.2	83.4	89.6
1998	4,651	44.3	20.6	14.0	4.2	2.5	8.4	2.1	78.9	87.3
2000	5,040	48.7	21.3	14.7	3.6	3.3	4.4	3.3	84.7	89.1

· 유럽 : OECD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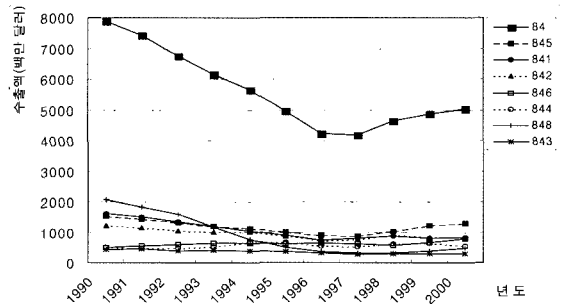
· 아시아 : 일본, 대만통계 제외

· 비중합 A : 미국, 일본, 유럽 비중의 합계

· 비중합 B : 미국, 일본, 유럽, 아시아 비중의 합계



〈그림1〉 세계시장에 대한 수출 의류제품의 품목별 비중 변화



〈그림2〉 세계시장에 대한 수출 의류제품의 품목별 수출액 변화

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율이 현저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2. 수출비중에 따른 주요 시장별 제품 특성

우리나라의 주요 의류수출 시장에 대한 수출의류 제품 특성을 수출액을 기준으로 한 수출 비중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1〉의 세계시장에 대한 품목별 수출비중을 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올수록 기타 의류(845) > 직물제 여성복(842), 직물제 남성복(841) > 편직제 여성복(844), 섬유소재 잡화류(846) > 비섬유소재 의류 및 잡화류(848) > 편직제 남성복(843) 순의 비중으로 수출되어 우리나라는 편직제 의복(843, 844)보다는 캐주얼 단품 의복(845) 및 직물제 의복(841, 842)의 수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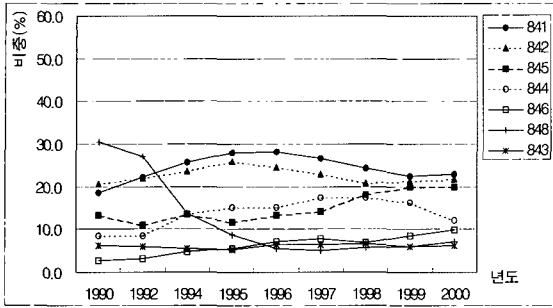
품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타 의류(845)는 1990년의 19.4%에서 2000년의 25.4%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계 의류무역

에서 레저 의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세계 의류무역 총액 11,970억 달러 중 레저 의류 무역액은 8,250억 달러로 정장과 스포츠 의류의 비중을 초과 하였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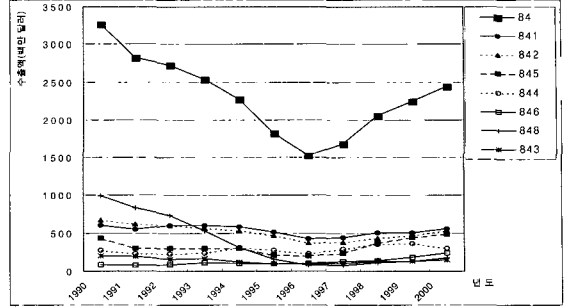
품목 중 비섬유소재 의류 및 잡화류(848)은 1990년의 26.3%에서 1990년대 후반에 10% 이하로 크게 떨어져 주요 수출품목에서 벗어나는 변화를 보였다. 직물제 여성복(841)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편직제 여성복(844), 섬유소재 잡화류(846)은 〈그림2〉와 같이 총 의류수출액이 감소한 가운데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 주요 수출품목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주요 시장인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중국 각 시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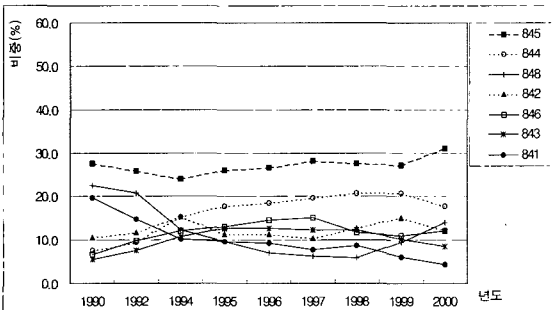
미국시장에 대해서는 〈그림3〉과 같이 직물제 남성복(841), 직물제 여성복(842)가 절반 정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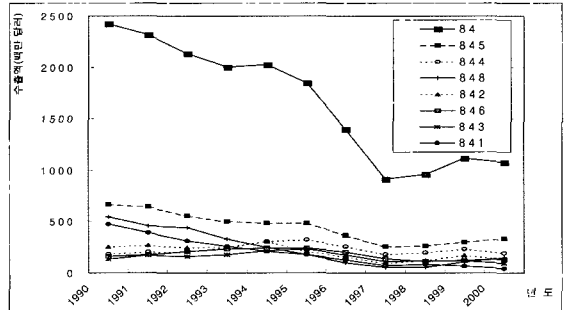
〈그림3〉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 의류제품의 품목별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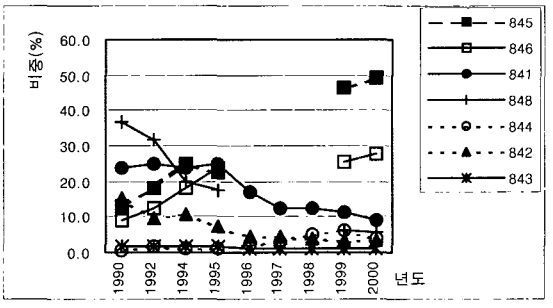
〈그림4〉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 의류제품의 품목별 수출액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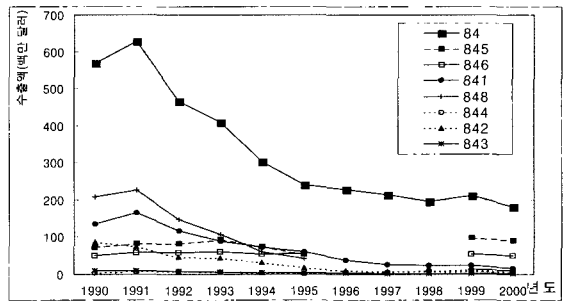
〈그림5〉 일본시장에 대한 수출 의류제품의 품목별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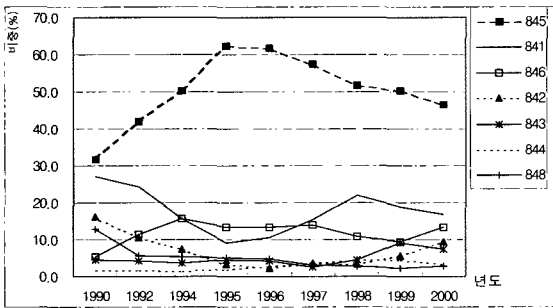
〈그림6〉 일본시장에 대한 수출 의류제품의 품목별 수출액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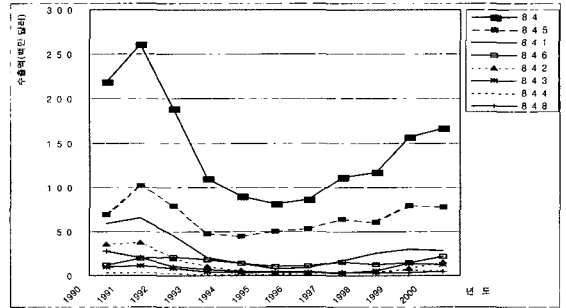
〈그림7〉 독일시장에 대한 수출 의류제품의 품목별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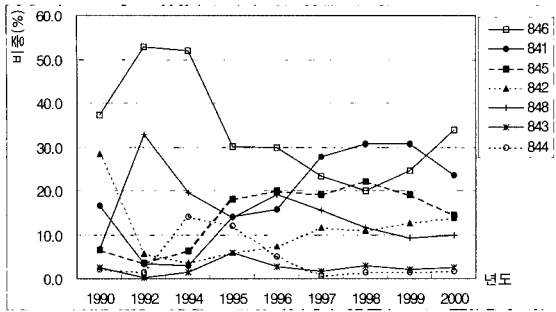
〈그림8〉 독일시장에 대한 수출 의류제품의 품목별 수출액 변화



〈그림9〉 영국시장에 대한 수출 의류제품의 품목별 비중 변화



〈그림10〉 영국시장에 대한 수출 의류제품의 품목별 수출액 변화



〈그림11〉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 의류제품의 품목별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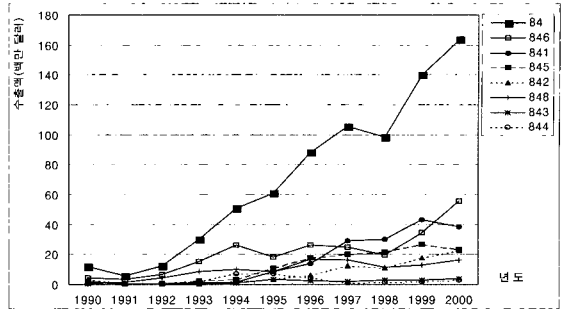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편직제 남성복(843), 섬유소재 잡화류(846), 비섬유소재 의류 및 잡화류(848)은 비교적 낮아 우리나라의 미국시장에 대한 의류 수출은 직물제 의류에 크게 치중되었다.

품목 중 편직제 남성복(843), 편직제 여성복(844), 기타 의류(845), 섬유소재 잡화류(846)은 〈그림4〉와 같이 미국에 대한 총 의류수출이 감소한 가운데도 비중 및 수출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이 점차 편직제 의류(843, 844), 캐주얼 단품류(845), 잡화류(846)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일본시장에 대해서는 〈그림5〉와 같이 기타 의류(845), 편직제 여성복(844)가 45% 이상 차지하여 이들 품목에 치중한 수출이 이루어졌다. 직물제 남성복(841), 비섬유소재 의류 및 잡화류(848)은 〈그림5〉, 〈그림6〉과 같이 비중 및 수출액이 계속 하락하여 주요 수출품목에서 점차 멀어지는 변화를 보였고 직물제 여성복(842), 편직제 남성복(843), 편직제 여성복(844), 섬유소재 잡화류(846)은 일본에 대한 총 의류수출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도 수출액에 큰 변화가 없고 비중도 소폭 증가하여 주요 수출품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독일시장에 대해서는 〈그림7〉과 같이 기타 의류(845)가 45% 이상, 섬유소재 잡화류(846)이 25%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이들 품목에 특화된 수출이 이루어졌다. 품목 중 직물제 남성복(841), 직물제 여성복(842), 비섬유소재 의류 및 잡화류(848)은 〈그림7〉, 〈그림8〉과 같이 비중 및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여 주요 수출품목에서 점차 벗어나는 변화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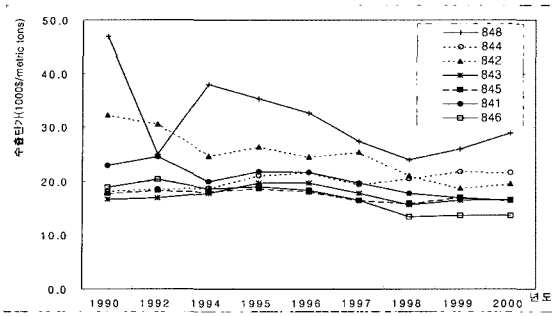
영국시장에 대해서는 〈그림9〉와 같이 기타 의류



〈그림12〉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 의류제품의 품목별 수출액 변화

(845)가 50%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기타 의류(845)에 편중된 수출이 이루어졌다. 기타 의류(845)는 〈그림9〉, 〈그림10〉과 같이 영국에 대한 총 의류수출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도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수출액도 꾸준히 증가하여 주요 수출품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편직제 남성복(843), 편직제 여성복(844), 섬유소재 잡화류(846)은 비중은 작지만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수출액도 총 의류수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여 향후 지속적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중국시장에 대해서는 1990~2000년에 동안 우리나라 총 의류수출액이 80억 2천만 달러에서 50억 4천만 달러로 지속적 감소를 보인 가운데도 다른 지역과는 달리 〈그림12〉와 같이 계속 수출증가가 이루어졌다. 품목별 비중 특성을 보면 〈그림11〉, 〈그림12〉와 같이 직물제 남성복(841), 섬유소재 잡화류(846)이 50%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수출액도 크게 증가하여 이들 품목에 크게 치중한 수출이 이루어졌다. 한편 직물제 남성복(841)의 비중은 계속 상승한 반면 섬유소재 잡화류(846)는 계속 하락하여 직물제 남성복(841)이 더 유망한 품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직물제 여성복(842), 기타 의류(845)도 비중 및 수출액이 계속 증가하여 이들 품목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이상 수출비중에 따른 한국 의류수출의 주요 시장별 특성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의류수출은 미국시장에 대해서는 직물제 남성복(841), 직물제 여성복(842) 품목이, 일본시장에 대해서는 기타 의류(845), 편직제 여성복(844) 품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유럽의 독일시장에 대해서는 기타 의류(845), 섬유소재 잡화류(846) 품목이, 영국시



〈그림13〉 세계시장에 대한 수출 의류제품의 수출단가 변화

장에 대해서는 기타 의류(845)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국시장에 대해서는 직물제 남성복(841), 섬유소재 잡화류(846)가 5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3. 수출단가에 따른 주요 시장별 제품 특성

주요 수출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의류제품의 단가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수출시장으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중국 외에 추가로 한국과 유사한 의류수출 역사를 갖는 홍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 의류제품의 단가 특성을 선진국, 신흥공업국, 후발국으로 나누어 보기 위함이며, 홍콩은 분석기간 동안 우리나라 총 의류수출의 0.4~1.7%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림 13〉의 세계시장에 대한 수출단가 변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품목별 단가 추이만 나타낼 뿐 품목

간 단가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한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수출단가는 인건비, 환율, 원재료비, 운송비, 경쟁구조 등에 영향을 받는다 (Dickerson)²⁷⁾. 제품생산에 드는 인건비, 원재료비, 운송비 등이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 단가가 상승하고 이들 요인에 큰 변화가 없다면 수출단가의 상승은 제품의 수준이 향상되어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13〉의 각 품목의 수출단가 추이를 보면, 편직제 여성복(844)은 약간 상승하였고 편직제 남성복(843), 기타 의류(845)는 미미하게 하락하였으며, 직물제 남성복(841), 직물제 여성복(842), 섬유소재 잡화류(846), 비 섬유소재 의류 및 잡화류(848) 등은 다소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출단가 변화가 임금 및 환율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3〉에 1990~2000년 동안의 의류 제조업의 임금 및 환율의 변화를 제시하였고 〈표4〉에 임금 및 환율과 각 품목의 수출단가 간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 〈표3〉을 보면, 1990년대 우리나라 의류 제조업의 임금 수준은 1990~1997년에 계속 상승하다가 1998~1999년 경제 위기 시에 일시적으로 급락하였고 2000년에는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한편 이 기간의 환율은 1990~1996년 소폭 증가하다가 1997~2000년에는 이전의 2배 정도 급증하여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표3〉 환율 및 의류 제조업의 임금 수준 변화 : 1990-2000

(단위 : 원, 원/미달러, %)

년도	임금 수준	환율 수준
1990		716
1992	513,712	788 (10.1)
1994	664,241 (29.3)	789 (0.1)
1995	768,043 (15.6)	775 (-1.8)
1996	832,993 (8.5)	844 (8.9)
1997	866,361 (4.0)	1,415 (67.7)
1998	802,648 (-7.4)	1,208 (-14.6)
1999	843,625 (5.1)	1,145 (-5.2)
2000	913,889 (8.3)	1,260 (10.0)

* 임금수준 : 의류제조업의 월평균 임금

* 괄호안은 증가율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통계정보시스템(KOSIS)²⁸⁾

〈표4〉 각 의류품목의 수출단가와 환율간의 상관관계

	841	842	843	844	845	846	848
임금	-.757*	-.761*	-.010	.760*	-.573	-.729*	-.069
환율	-.759*	-.662	-.407	.382	-.882**	-.798**	-.649

* : p<0.05, ** : p<0.01

임금 수준 및 환율의 변화와 수출단가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표4〉에서 보면, 임금과 수출단가는 품목에 따라 상관이 없거나 혹은 부적인 상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중 편직제 여성복(844)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수출단가가 하락한 추세를 고려한다면 임금의 상승은 수출단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환율과 수출단가는 품목에 따라 상관이 없거나 혹은 부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의 환율 상승은 의류제품의 수출단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한국섬유신문²⁹⁾에서도 1990년대 후반기 한국 섬유 제품류의 지속적인 수출단가 하락은 환율 요인과 함께 섬유-의류 수출업체들이 자체브랜드 개발보다는 OEM 수출에 치중한 것, 수출업체들 간의 과당 경쟁, 동남아시아 등 후발개도국들의 저가 공세 등이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품목 중 편직제 여성복(844)은 환율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편직제 남성복(843), 기타 의류(845)도 단가 하락이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 우리나라 수출 의류제품은 편직제 품목을 중심으로 제품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시장별 단가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14〉~〈그림 20〉에 세계 및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홍콩, 중국시장에 대한 품목별 단가 변화를 제시하였다. 〈그림 14〉~〈그림 20〉은 각 품목별 변화 추이를 나타내므로 품목에 따른 수출 시장별 단가 수준을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목별 특성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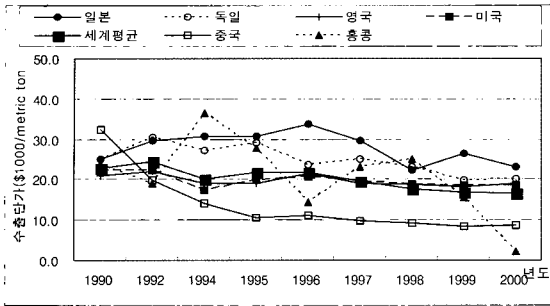
품목별로 보면, 직물제 여성복(842), 비 섬유소재 의류 및 잡화류(848)은 지역간 단가 차이가 가장 컸고 그 다음이 직물제 남성복(841), 편직제 남성복(843), 편직제 여성복(844), 섬유소재 잡화류(846)였으며 기타 의류(845)는 단가 차이가 가장 적었다.

직물제 여성복(842), 비 섬유소재 의류 및 잡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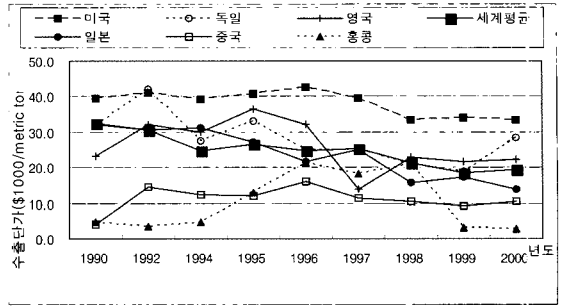
류(848) 품목의 지역간 단가 차이가 큰 것은 이들 품목이 국가의 발전 상태 및 국민소득 정도에 따라 요구되는 제품 수준 즉, 원단 및 부자재의 고급 정도, 패션성 정도, 봉제 상태 등의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유아복, 저지셔츠, 폴오버, 티셔츠, 조끼류, 브래지어, 콜렛, 가티류, 운동복 등을 포함하는 기타 의류(845)는 다른 품목에 비해 수출 지역간 단가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이는 이들 품목이 기본적으로 신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다 제품생산에 요구되는 섬세함 정도, 고도의 기술 수준 등이 841~844의 여성복, 남성복에 비해 비교적 덜 요구되고 또한 각 국가의 국민적 선호를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특성(세계인이 공통적으로 착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디자인, 사이즈)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품목별로 지역별 단가 수준을 보면, 직물제 남성복(841)은 일본 > 독일 > 미국, 영국 > 중국 순으로, 직물제 여성복(842)은 미국 > 영국, 독일 > 일본 > 홍콩, 중국 순으로 가격이 높았으며, 비섬유소재의 의류 및 잡화류(848)는 일본, 독일 > 미국, 영국 > 홍콩 > 중국 순으로, 편직제 남성복(843), 편직제 여성복(844), 기타 의류(845), 섬유소재 잡화류(846)도 대체로 선진국 > 신흥공업국 순으로 가격이 높아 우리나라 의류제품은 신흥공업국보다 선진국에 높은 단가로 수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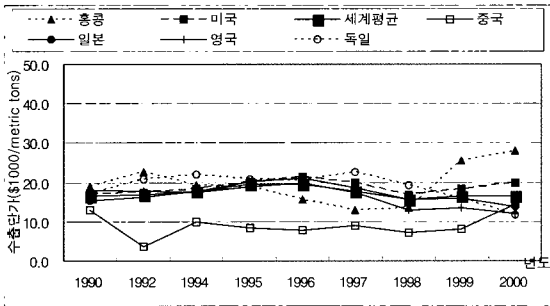
이상 1990년대 우리나라 수출 의류제품의 수출단가를 기준으로 한 특성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수출 의류제품은 분석기간 동안 대체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하락은 이 시기의 환율상승에 의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직제 여성복(844), 편직제 단가가 남성복(843), 그 밖의 섬유소재 의류(845) 등은 오히려 상승하거나 혹은 미미하게 하락하여 편직제 의류 품목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제품 수준이 향상되고 있고 중국 등 후발 경쟁국과도 차별화하며 제품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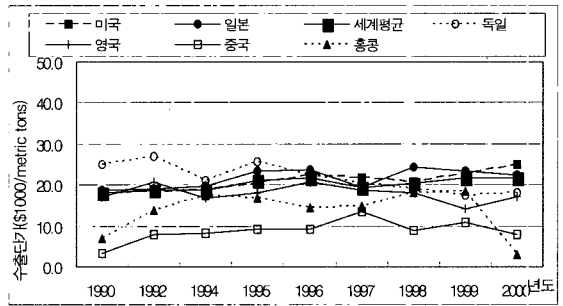
〈그림14〉 직물제 남성복(841)의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수출단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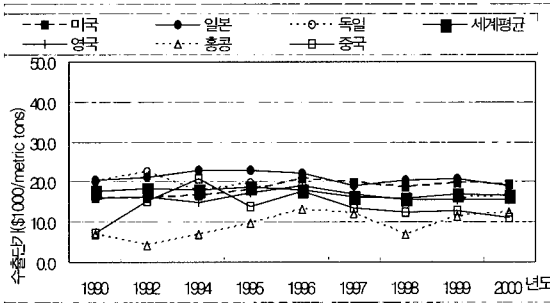
〈그림15〉 직물제 여성복(842)의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수출단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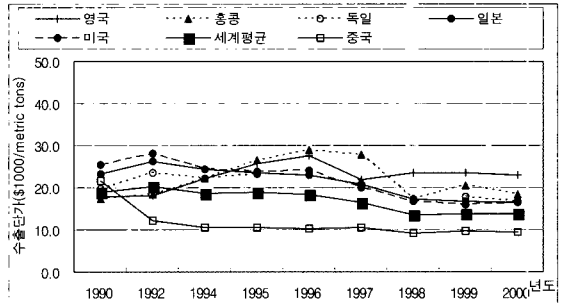
〈그림16〉 편직제 남성복(843)의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수출단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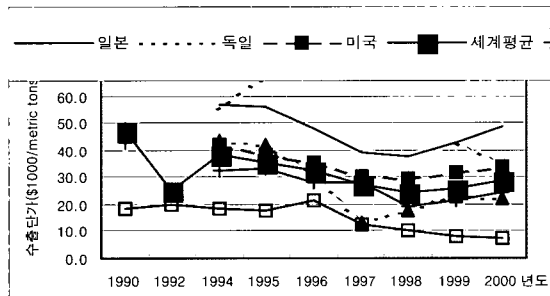
〈그림15〉 편직제 여성복(844)의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수출단가 변화



〈그림18〉 기타의류(845)의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수출단가 변화



〈그림19〉 섬유소재 집화류(846)의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수출단가 변화



〈그림20〉 비 섬유소재 의류 및 집화류(848)의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수출단가

V. 결론

본 연구는 2005년 쿼터 폐지 이후 점점 더 격심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의류수출정책을 수립하고 각 수출기업의 전략적인 품목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1990~2000년 동안의 주요 의류수출시장에 대한 수출제품 특성을 수출비중과 수출단가를 중심으로 분석

하였다.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비중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의류제품은 세계시장에 대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 기타 의류(845) > 직물제 여성복(842), 직물제 남성복(841) > 편직제 여성복(844), 섬유소재 잡화류(846) > 비 섬유소재 의류 및 잡화류(848) > 편직제 남성복(843) 순으로 수출되었고 특히 캐주얼 단품 의복(845) 및 직물제 의복(841, 842)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시장별로 보면, 미국시장에 대해서는 직물제 남성복(841), 직물제 여성복(842) 품목이, 일본시장에 대해서는 기타 의류(845), 편직제 여성복(844) 품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독일시장에 대해서는 기타 의류(845), 섬유소재 잡화류(846) 품목이, 영국시장에 대해서는 기타 의류(845)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국시장에 대해서는 직물제 남성복(841), 섬유소재 잡화류(846)가 5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둘째, 수출단가를 중심으로 보면, 우리나라 의류제품은 1990~2000년에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품목별로는 편직제 여성복(844)이 약간 상승하였고 편직제 남성복(843), 기타 의류(845)는 미미하게 하락하였으며, 직물제 남성복(841), 직물제 여성복(842), 섬유소재 잡화류(846), 비 섬유소재 의류 및 잡화류(848) 등은 다소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의 환율 상승과 수출업체들 간의 과당 경쟁, 동남아시아 등 후발개도국들의 저가 공세 등을 고려해 볼 때 편직제 여성복(844), 편직제 남성복(843), 기타 의류(845) 품목의 단가가 오히려 상승하거나 미미하게 하락한 것은 우리나라의 의류수출이 특히 편직제 품목을 중심으로 제품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홍콩, 중국 등 주요시장별 각 품목의 수출단가를 보면, 대상국의 국가 발전 상태를 반영하듯, 대체로 선진국, 신흥공업국, 후발국의 순서로 단가가 높았다. 품목 중 직물제 여성복(842), 비 섬유소재 의류 및 잡화류(848)은 수출지역간 단가 차이가 가장 컸고 그 다음이 직물제 남성복(841), 편직제 남성복(843), 편직제 여성복(844), 섬유소재 잡화류(846)이었으며, 기타

의류(845)는 단가 차이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시장에 수출되는 중국 의류제품의 수출단가가 1998년 \$2.66에서 2000년에 \$2.51, 2002년에 \$2.24로 계속 하락하였다. 중국 의류제품의 수출단가 하락은 경쟁국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압박이 되고 있다. 점점 격심해지는 가격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의류제품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글로벌 소비자들의 패션 취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제품의 고급화를 통하여 세계 시장에서의 틈새적 입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시장별로 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는 상대국에서 요구되는 제품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시장별로 각 국가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소비자들의 의류제품에 대한 요구 특성을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수출품목 특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1) UN 무역통계.
- 2)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산업현황. 자료검색일, 2005년 10월 10일. <http://www.kofoti.or.kr>
- 3) Ibid.
- 4) 박남규 (1991), 산업의 국제경쟁력 수명주기에 대한 실증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5) 박진수 (1994), 한국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을 위한 포터 이론의 비판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최대현 (1991), 한국의류산업의 국제경쟁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박남규 (1991), Op. cit.
- 8) 박진수 (1994), Op. cit.
- 9) Ibid.
- 10) 이은주, 권경란 (2001), 한국 의류 및 섬유산업의 경쟁우위 향상에 관한 제언, *한국의류학회지* 25(2), pp.458-469.
- 11) 성주영 (1996), 한국 섬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이은향 (1997). 한국섬유산업 수출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오윤경 (1998). 섬유산업 중소기업의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산업연구원 (2001). 2005년 섬유교역자유화에 따른 영향분석 및 경쟁력 확보방안.
- 15) 강현수(1995). 유연성 이론의 비판적 검토와 서울 의류산업의 유연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6) 오윤경 (1998). Op. cit.
- 17) 이은향 (1997). Op. cit.
- 18) 임재홍 (1987). 산업내무역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김영남 (1991). 한국의 산업내 무역 현황과 그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박상현 (1998). 한국 무역구조의 분석 : 한·미·일간의 산업내 무역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U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 22) UN, *Commodity Trade Statistics*.
- 23) UN, Statistical Division: <http://unstats.un.org>
- 24) OECD, *Foreign Trade by Commodities*.
- 25) OECD, *International Trade by Commodities Statistics CD-ROM*.
- 26)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04). 2005년 중국 패션시장 전망 보고서.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27) Dickerson, K. G. (1991). *Textiles and Apparel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28)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통계정보 시스템(KOSIS).
- 29) 한국섬유신문. 2001. 5. 6.